

11. 음봉면

가. 음봉면 마을 1 (산동리)

1) 조사일정

1994. 6. 29., 방지선 기록

조사 둘째 날인 6월 29일 오전에 월랑리 조사를 마치고 찾아간 곳이 바로 산동리다. 2시에 월랑리를 떠나 30분 후 산동에 도착하였다. 비가 내리는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물어 물어 김명철 이장택에 들러 <토정비결이 안 맞는 이유>, <토정의 예언>, <은행 나무의 유래> 등을 이야기해 주었고 김강수 씨 택에 많은 어르신이 계신다고 하여 그곳으로 가서 김업룡 씨가 <천안에 비가 안 오는 이유>, <충청도 아리랑> 을 불러 주었다. 모든 어른들이 화투를 치느라 조사자들을 구박하여 4시 30분에 숙소로 돌아왔다.

2) 마을 개관

【음봉면 마을 1】

337-860 충청남도 아산군 음봉면 산동리

1993. 6. 29., 박은실 조사

천안뜸, 공수굴, 용혈, 또 둔포의 소금을 날라다 말렸다고 하여 소금쟁이라고 불렀다는 산동리는 거리에서 약간 안쪽에 위치하여 평화롭고 안정되어 보였다. 주로 축산과 농업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듯했으며, 다른 지역보다는 생활 수준이 좀 높은 듯 보였다. 행정기관이나 교육시설은 없으며, 국민학교는 탕정면의 동덕국민학교로, 중·고등학교는 천안지역으로 통학하고 있었다. 이 마을은 기독교인이 무려 80%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만나는 사람마다 표정이 밝아서 집들이 산재해 있기는 하지만 주민끼리 친근해 보였다.

3) 구연자

【산동리 구연자 1】

음봉면 산동 2리, 김명철(金明鐵), 남, 67

1993. 6. 29., 김연아 조사

이곳에 3대째 거주하면서 목장을 경영하고 있으며 잘생긴 얼굴에 굉장히 여유있는 삶을 누리고 있는 분 같았다. 조사자들을 위해 미리 자료를 복사해 놓을 정도로 굉장히 호의적이고, 조사자들을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으로 안내까지 해 주었다. 직접 경영하고 있는 목장도 자랑스럽게 구경시켜 주었고 많은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

【산동리 구연자 2】

음봉면 산동 2리, 김업룡(金業龍), 남, 59

1993. 6. 29., 김연아 조사

이곳에 거주한 지 이제 겨우 1대 째로 멋진 빵모자를 쓰고 있었으며 말도 적극적으로 잘해 주시고 도중에 노래까지도 부르는 열의를 보였다. 흥겹게 손짓까지 곁들이며 구연하고 노래를 부를 때는 눈도 지그시 감는다. 충청도 천안 양반에 대해 말했고, 인력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며 살아야 한다는 의사를 자주 표시하였다.

【음봉면 산동리 설화 1】

음봉면 산동리 김명철씨 덕, 1993. 6. 29., 박은실, 방지선, 김연아 조사

김명철(남, 67)

토정비결이 안 맞는 이유, 토정의 예언, 용와산의 유래, 은행나무의 유래

그래서 거기서 소금을 받아가지고 오다가 여기서 하루 잤단 말여. 여기서 놀다가 옛날에 지고 오니까 그래서 소금쟁이라고 그래서 이 분이 일도 않고 먹고 다니며 자기 작은아버지한테 토정비결을 해줬어. 이거나 봐주고 먹고 살으라고. 빌어먹으라고. 가서 빌어먹고 살으라고. 그러다 보니까 전연 일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토정비결을 봐주고 저기 무위도식하는 거. 그래서 그 토정비결을 몇 가질 수정했다는 거. 틀리게 했다는 거, 토정 선생이. 다 맞으니까 그 그래 그러니까 좀 틀리는 게 있어야 점보는 사람들도 좋다는 거. 그래 지금 토정비결이 안 맞는 것이 더러 있다는 거.

아산 군수래는데 어 군수 하기 전이지. 하기 전이 이 아산이 물이 이렇게 넘친다고. 넘치니까 피난을 가라 그랬어. 근데 그 당시 그 피난을 안 간 사람 안 간 사람덜 많이 죽고 그래서 그랬단 말여, 이지함 선생이. 그래서 그 당시 이 물이 넘치니까 피난가라고 그랬는데 안 간 사람덜은 많이 죽고 피난 간 사람들은 살은 거. 그 사람이 그 물을 그러니까 이 이지함 선생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 무언가 이 그 한문이로만 그 저기한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물이라 그럴까 이 그런 것도 다 아니께.

용와산이여, 용와산. 용이 누웠다는 거여. 그런디 거기 가면 말이지. 거기 굴이 있는데 처음에 들어가는 데는 아주 좁어, 좁어. 근데 그게 난 조금 조금만 들어가 봤는데 그 너머로 거기 들어가 본 사람들 애길 들어보면 속에 하루동안 가면 넓어진대. 또 들어가면 넓어지고. 근데 거기서 근데 이저 용와굴이란 게 옛날에 용이 드러누웠다는 것인데 용와산이 용와산이었다는 그거여. 근데 그게 그런 얘기도 있어. 거기서 불을 때면 저 둔포 가서 연기가 나온다는 그랬어. 뭐지 그래. 연기가 나가겠어 그게? 호수나 바람으로 부치지 않으면 나가겠어, 그게?

밤에 가는데 그게 도깨비 굴이라. 죄 가다가 또 없어져. 또 한참 가다가 한참 직 하다가 없

어지구. 은행나무디 수년은 한 육백 년 되는데 육백 년 된 은행 나무디 저 일사람들이 전에 나무 공출을 했었다고 그전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여. 공출이라면 어 거기 뭐 식기도 건 어가고 나무도 베가고 베 갈라 그러는데 그걸 몇 번 찍은 자국이 있지. 한 서너군데 찍혔지. 몇 번 찍었는데 그 다음은 겁이 나가지고 베질 못했어. 아 베다가 죽었다거든. 베다가 다 죽었대. 그거 찍고서. 어 우리가 보진 못했는데 벌써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왜정 말기에 어 그걸 베 가지고서 그걸 배를 만든다고 그걸. 은행나무로.

【음봉면 산동리 설화 2】

산동리 김명철씨택, 1993. 6. 29., 박은실, 방지선, 김연아 조사

김업룡(남, 59)

천안에 비가 안 오는 이유, 충청도 아리랑

충청도는 워낙에 말이며 양반의 고장이거든. 양반의 고장인디 비가오지 않아. 왜 오지 않냐
문 양반들이 이렇게 도포자락을 딱 걸치고 갓을 쓰고 나가는데 비가 오면 안 되거든. 갓이
다 젖을 거 아닌가. 그런게 충청도는 일부러 비가 안 온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양반이
사니까 안 온다는 것인지 그건 난 잘 모르지만은 좌우지간에 천안 지방에는 양반이 많이 살
기 때문에 제일 비가 적게 오는 고장이 바로 천안이야. 그것이 바로 무엇이나면 양반의 도
포자락이 젖을까봐 안 온다는 것이여.

아니 아니하리이 충청도 사람들도 아리드리지요.아리하리 아리하리이이

그렇지만 행동은 빨라 좋아요. 아리아리

이렇게 하면 이게 충청도 민요야.

나. 음봉면 마을 2 (삼거리)

1) 조사일정

1993. 6. 28., 이미진 기록

조사 첫날인 6월28일 오후3시에 숙소를 출발하여 미리 약속이 된 정찬영 씨의 아버님을 찾
아갔으나 생일 잔치 관계로 식구가 모두 서울에 갔다는 이웃의 설명을 듣고 텅 빈집을 뒤로
하고 주위의 다른 구연자를 찾아보았으나 여의치 않아 다시 4시10분에 숙소로 돌아왔다.
숙소로 돌아와 삼거리 복지회관에 계신 할머니들께 얘기를 부탁했다. 그러나 모두 아는 얘
기가 없다며 거절하고 안춘희 할머니가 <사발가>와 일제시대 불렀던 <왜정 때 남편을 그리
워하는 아내의 노래>등 두 곡 들려주었다.

2) 마을 개관

【음봉면 마을 2】

337-860 충청남도 아산군 음봉면 삼거리

1993. 6. 28., 류지원 조사

음봉면 삼거리의 남녀의 비율은 거의 50 대 50으로 대부분 농민을 짓고 있다. 다른 소득원으로는 품을 팔기도 하고, 수박과 참외 등 과일 농사도 짓기도 한다고 한다. 삼거리는 음봉면 면사무소가 위치한 면소재지로 다른 마을에 비해 발달된 모습을 하고 있다. 온양과 천안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훤히 트여있어 비교적 교통이 편리해 다른 마을과 왕래가 잦은 편이다.

3) 구연자

【삼거리 구연자 1】

아산군 음봉면 삼거리, 안춘희(安春姬), 여, 70

1993. 6. 28., 김명선 조사

직업은 주부이고 현지 거주 경력은 5년째이다. 외모상의 특징은 여느 할머니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모습이다. 안경을 끼었고 약간 뚱뚱하며 나이에 비해 정정하시다. 그리고 약간 날카로운 눈초리이다. 앞니에 틈이 많다. 노래 부를 때 손으로 무릎을 치면서 박자를 맞추거나 눈을 지긋이 감는 것이 구연 시 독특한 버릇이라고 할 수 있다. 노래에 대한 해설도 해주셨다. <사발가>와 <왜정 때 남편을 그리워하는 아내의 노래>를 들려 주셨다. 의식상의 특징은 카톨릭 신자인데도 신분차별 의식이 있다. 특히 기생에 대해서는 심하였다. 자기주관과 고집이 세었다. 청중들은 구연자가 노래를 부를 때 같이 박수를 치며 흥을 돋구었다.

4) 설화자료

【삼거리 설화 1】

음봉면 삼거리 복지회관, 1993. 6. 28., 이미진, 김명선, 류지원 조사

안춘희(여, 70)

사발가, 일제 때 남편을 그리는 아내의 노래

삼거리 1

옛날 노래 한 마디 해줄께.(조사자: 예.) “홍도야 울지마라” 옛날 노래 아녀? 그것도 인제.
(청중: 그렇지유, 그렇지유.)

석탄 백탄 타는데 연기만 퍼얼필 나는구려,
요내 가슴 타는 데는 연기도 진도 안 난다.
에헤요 에헤야 어야라난다 디어라 허송세월을 말어라.
정든 님은 오실라면 거저 더디게나 오시지,
꿈속에서만 오락가락 구곡간장을 다리기네.

에헤요 에헤야 어여라난다 디여라 허송세월을 말어라.

(청중: 박수) 산에 가문서 지게메곤 하면서 늙은 총각이 자기 신세타령 하는 노래여.(조사자: 아,예.)

이제 가니 얼마나 좋으려는 배꽃 같은 날 두고 연락선 타느냐. 하가끼¹⁾ 한 장 예이에 일전 보려니건마는 정든 님 소식은 무소식이로구나. 그때는 왜정 때 신랑이 일본 모동을 샀잖여. 가서는 신랑을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거든 근게 일본 배관²⁾이 얼마나 좋으면 꽃 같은 나를 두고 갔느냐. 하가끼라는 것은 일본말로 편지여, 엽서. 엽서 이름이 하가끼여. 하가끼 한 장 이면 일전 고려인디. 정든님 소식은 무소식이라는 거여. 하가끼 한 장 안 와. 그거 그 노래여. (조사자: 가슴 아픈 얘기네요.) 응, 가슴 아프지. 생각하면 역사가 짙은 노래가 아녀. 일본 배관이 얼마나 좋으면 꽃 같은 날 두고 연락선 타느냐. 하가끼 한 장 일전 고려인데 정든님 소식은 무소식이라는 거여. 이게 얼마나 가슴이 아픈 기맥힌 소리여, 이게.

다. 음봉면 마을 3 (소동리)

1) 조사일정

1993. 6. 29., 박미애 기록

조사 둘째 날인 6월 29일 10시 10분에 숙소를 출발하여, 소동리1구 노인회관을 찾아갔다. 노인회관에 몇 분의 노인이 있었으나 모두들 말씀을 못한다고 하고, 또 이 마을엔 전설도 없다고 하면서 얘기를 꺼리는 바람에 전혀 소득이 없었다. 학생들에게 해 줄 얘기이니 반드시 교훈적이어야 하고, 역사적 근거가 있어야만 해야 한다는 생각을 대부분의 노인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듣는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다. 노인들의 추천으로 소동리2구에 사는 장세균 씨를 찾아갔는데 그분께 <아전의 욕심이 부른 토정의 죽음>, <박어사와 능수버들의 유래>, <소동리 명인의 무덤>, <어린 순신에게 무예훈련을 가르쳐 준 도사>, <스님을 박대해 패가망신한 백천 조씨>를 들을 수 있었다. 비도 오고 온 마을의 노인들이 외지 사람을 경계하여 이야기하기를 꺼려해서 별 소득 없이 16시에 숙소로 돌아왔다.

2) 마을 개관

【음봉면 마을 3】

337-860 충청남도 아산군 음봉면 소동리

1993. 6. 29., 최소정 조사

음봉면 소동리에는 6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남녀별 인구는 별 차이 없이 동일하며, 주로 농업에 종사한다. 규모가 작은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마을사람들 간은 그다지 친밀한 것 같지는 않았다. 외지 사람들에 대한 경계도 심하였다.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민속행사는 없

다고 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그다지 관심이 없는 듯하였다.

3) 구연자

【소동리 구연자 1】

음봉면 소동리 370-4. 장세균(張世均) 남, 67

1993. 6. 29. 권은주 조사.

가름한 얼굴에 마른 체구. 전쟁 중 부상으로 한쪽 다리를 절어 농사일을 하지 못하고 지관 일을 하고 있다. 조사자 일행을 만나기 전에 술을 드셔 구연 시 같은 말을 자주 반복하며 입을 쭉쭉 다시고, 기침을 자주하며 중간중간 말이 많이 끊겼다. 이야기를 잘 하시나 하나의 이야기가 끝나면 ‘몰라 난’ 하는 말을 자주 한다. 그러나 마을의 전설이나 유서 깊은 이야기들을 보존하고, 소동리에 명인이 많이 묻혀 있어 산소를 찾아주고 싶어 하나 자손들이 관심이 없음을 아쉬워하였다.

4) 설화자료

【소동리 설화 1】

음봉면 소동리 장세균씨 자택, 1993. 6. 29., 박미애, 유주연, 권은주, 최소정 조사

장세균(남, 67)

아전의 욕심이 부른 토정의 죽음, 박어사와 능수버들의 유래, 소동리 명인의 무덤, 어린 순신에게 무예훈련을 가르쳐준 도사, 온양 온천의 유래, 스님을 박대해 패가망신한 백천 조(趙)씨. 거먹소 타고 다닌 맹사성

원남 소동 1 뒤, 원남 소동 2 앞

한산 이(李)씨야. (조사자: 토정 이지함 선생님요?) 음 한산 이씨 적을라면 적어 (조사자: 예.) 왜 토종비결 있지? 토종비결. 그 낭반이 한 거야. (기침) 천천히 해야지. (조사자: 예, 천천히 하세요.) 아산읍내라고 아산, 아산 청내리 아산 아산군, 아산군, 그때는 일정 때여, 그전 그전 일정 전에는 군이 인저 이렇게 됐어. 지금 인저 일정 때 들어와서 지금 삼군을 합치 됐거든. 왜냐면 아산군 하고 저 저 신창군 또 온양군하고 요기가 지금 합치된 것이 아산군이여. 응. 그러면 평택이 무너지나 해방되고 말이야, 저기 이 일정 일본놈들이 저기해서 인저 삼군을 통합할 적에 삼군을 통합할 적에 (기침) 삼군으로 통합할 적에 말이여. 일군으로 만든단 말이야. 그럴 적에 평택, 평택은 진위군 있고 진유군 있고 평택군이 있고 송찬군이 있어. 그래 아산군하고 인저 아산군수하고 인저 평택군수하고 “나는 평택군을 만든다.” 삼군을 합칠 적에 했는디 아산이 무너지나 평택이 깨지나 이 말이 그때 나온겨 그거 알어? (웃음) 그때 그렇게 된겨. 그렇게 된 기여. 그래서 아, 그랬는데 아산군수가 참 세력이 더 나서 여긴 아산군으로 만들고 여기도 삼군 합치할 때 평택군, 평택군하고 진이하고 인저 송찬하고 인저 합치할 적에 서로 평택군수가 하는 말이 너하고 나는 평택군으로 만든다 했다가 세력이 모자라서 진위군으로 평택군은 진위군으로 뺏겼어. 그래서 세력이 세력이 인저

모잘라서 아산군수가 그때 상탤다는 거야. 일정 때야, 일정 때. (조사자 : 예.) 삼군을 합치
 했지 (조사자 : 예.) 그런데 인저 토정 선생님은 몇 해 전이냐면 오륙백 년, 오륙백 년 전
 분이셔. 그랬는디 인저 아산군수였었거든, 그전에 옛날에. 그때 다 삼군으로 있을 적에 아산
 군수였는데 요기야 요기 요 저 고령산이라고 (조사자 : 고령산이여?) 고령산이라고 있어, 요
 기. 그거부터 얘기할께. 고령산이라고 있는데 고기에 금성리, 성내리 고기에서 저기 군수노
 롯 했거든 그 낭반이 토정 선생님이. 가만있어. 인저 책을 그 때는 그냥 했는디, 거기서 인
 저 군수노 롯 했어, 요기서 아산 요기, 인저 성내리에서. 그랬는디 하루는 중이 와서 어 중이
 와서 토정선생한테 “주의하시오.” (조사자: 예?) “주의하시오.” (조사자: 주의하라고요?) 주
 의하시오 그래고 가더리여. 아, 그런데 토정 선생님이 지네, 지네즁을 잘 잡수셨데. 지네, 지
 네라고 왜 지네 있잖아? 지네 (조사자: 예.) 거기다가 그 즁을 해서 잡숫고선 밤생울을 쳐서
 먹어야만 효과가 있는건디 아전들이 죽였어. 어떻게 죽였냐면 인제 차차차차 얘기할께. 토
 정 선생은 인제 그 낭반이 돌아가실려고 그렇게 뻘지. 고기 고령산이라고 있어. 그 인저 아
 전들을 데리고 가서 인저 “돌좁 떠 들어봐라, 지네잡게” 아 보니까 지네도 잡고 맨 금 금천
 지야 금덩이야. 금이 환해. 인저 아전들이 그걸 보고선 지네를 잡아 와 가지고선, 와가지고
 선 지네를 저기하고선 아전들이 즄덜이 인저 갈취할려고 응? 버드나무, 버드나무 꺾아가지
 고 밤마냥 생울 썰어서 갖다드렸어. 지네, 지네 인저 저기 생즁을 잡숫고 잡숫고 나서 밤생
 울을 잡서야 하는데 아 씹으니 막대기가 씹어져? 그게 넘어가야 되는건디 그래 작고하셨다
 는 거여. 그리고 그 낭반이 먼저 거기서 그저 도사지... 하루는 요렇게 가니께 새우젓 장사
 가 새우젓 장사가 “아니 어서 굴러왔어” 그러더니 천지개벽이 되니까 왜 저기 조기 바로 강
 가니까 물밀려오니까 올라오시오. 그래가지고선 같이 갔디야. 새우젓 장사가 고기서 인저
 작대기해서 새우젓 조기해서 받쳐놓고 토정 선생님을 위로 위로 떠다박질렀대. 그리고 나니
 께 그때 해일이 일어나서 짝 쓸렸을 적에, 짝 쓸 적에 새우젓 장사가 작대기 이 꼬트머리카
 지 물이 올라왔는데 응? 그래서 살았다는 거여. 그 낭반이 살았다가 아전들한테 저기 뭐야
 (조사자: 지네.) 지네 잡으러 갔다가 인저 저기들이 아전들이 황금으로 뵈 가지고선. 그래서
 아산에는 금이 없어. 그래가지고 음 (조사자: 그때 다 캐서? 웃음.) 아 그래가지고 금이 없
 다. 금동 못해, 금이 하나 없어, 켈 금이 없어. 금동이 없어. 그랬어 그랬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그 낭반이 저기에서 토정비결이라는 게 참 용하기도 하지만 일부러 다 태우고 그 낭반
 이 돌아가시고나는 바람에 다 태우고서 반쪽만 남은거 가지고 하는디 그래도 대충은 맞는디
 맞는 사람은 맞는다고 그리고 안 맞는 사람은 안 맞는다고 그러지. 그런기여. 그 낭반이 그
 랐다는 거야. 몰라 난 그것밖에. 지네 지네즁을 해서 드려야 되는디 밤생울을 쳐서 밤생울
 을 밤을 그걸 먹어야만 되는디 저기 뭐야 버드나무 버드나무 꺾아가지고선 밤생울 모양으로
 해서 꺾아서 그거 씹어야 씹어져? 그래서 돌아가셨다는 거지. 그거야 그 낭반은 뭐 그렇게
 하고 여기서 가셨지. 가셨다는 걸 내가 알아. 난 그거밖에 없어.(조사자: 박어사가 뭐 어디
 서 망신당했다는 것은 못 들으셨어요?) 그거 들었지. 그렇지만 그래도(기침) 귀신 모양으로
 다 해서 응? (조사자: 박어사가요?) 아니, 여자가. 박어사를 골린다고. (조사자: 예.) 쫓아 당
 졌데요, 몇 번이나 (조사자: 예.) 그래서도 꾸심없이 그냥 한다는 거지. 그래 아이 그냥 다
 내가 설명하자면 뭐 한없어(조사자: 한번 해 주세요.) 아니 못해여, 다. (조사자:그럼 간추려
 서라도 해 주세요.) 아니 박어사를 죽일라고 여자가 마구지 몇 번 쫓아가고 몇 번 쫓아가고
 몇 번 쫓아가고 했어요. 망신도 많이 당했지. 그 여자 땀에. (기침: 왜요?) 꼭 그양, 가야되
 면(기침) 남의 여자 훔쳐가고, 쫓아가서. 잘라면 막 박어사만 야단치는 기여 그양, 찾아내라
 고. 그리고 인저 (녹음불량) 가면 또 쫓아오네, 그 여자가. (녹음불량) 그랬는데 그래도 쫓쫓

하게 그런 탓이지. 그 그 낭반이 박씨지, 난 몰리.

(조사자: 박어사가 전라도 갔다는 얘기.) 전라도지. 그 낭반이 참 잘했지.(기침) 그 인저 과거 보러 올라오다가 천안 삼거리 요기 천안 삼거리 있잖아. (조사자: 예, 알아요.) 거기 주막에 와서(기침) 지팽이, 왜 저 버드나무 능수버들. 그 여자가 여자가 그 인저 주막에서 인제 자고 저기 하는 기거하는 저기 하는 왜 저기 있잖아 여자. 그 애하고 인저 저기해 자고서 버드나무를 그제 능수버들이라는 것이 그제 여자가 능수야. 그걸 버드나무를 꺼꾸로 심고 갔어. 그러게 인제 능수버들이 되어서 퍼졌다는 거지. 전부 거기 그거야. 꺼꾸로 심어서 아 버드나무 그건 아무렇게나 해도 삽 시켜서 심으면 다 살거든 그런게 이진 그냥 저런 버드나무를 바로 심었으면 그냥 딴 버드나무디 꺼꾸로 심었기 때문에 꺼꾸로 이렇게 그래서 이게 능수버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능수버들이라는 거지. 그리고 능수산 분인데 난 몰리 다. 내 내력을 다 저기 하먼은 한이 없지. 여러번 여러번 그 낭반이 참 저기 한 분이고.

(조사자 : 소동리 내력이요?) 내 그거나 하나.(기침) 여기 명인들 많이 묻혔어. (조사자: 명인들이 많이 묻혔다고요?) 저 그래서 그래도 저기해서 다 찾지 못하고 내가 찾아 줄려고 애써도 그 손들이 뭐 썩곳도 안 해. 우리 밭이 여기 둔둑이라고 거기 황희 황희 황정승이 다 지금이나 그때나 그때 이조 땡가 되나 봐. 몇 년 땡는지 내 알아? 그런데 우리밭짜리 거기 다 집짓고 고 아래 행랑채 짓고 내가 접대 저기 하고 있으면 걸리다가 구양왔어, 구양 (조사자: 구향?) (조사자 2: 귀향?) (조사자: 아! 귀향.) 구양이란건 서로 세력 다툼하다가 인제 황정승이 인저 저기 간신들이 저기서 구향 보낸겨. 응? 그래 인저 죽이잖고 그냥 구양을 보낸단 말이여, 조기 나 있는 데가 소동으로 구향왔지. 인저 아전들 데리고 와서 다 우리 밭짜리여 거게. 인저 죽었네 그 낭반이 와서. 죽었는디, 아 인저 거기서 살수가 있어? 그때 병자호란 때인 모양이여. 인저 남편이 죽었으니 아들 하나 데리고 떠나야 되잖아. 게 고기다 모셨어. 묘 쓰고 비석해 놓고 봤어. 그런데 저기는 나 저기 할 적에도 봤어. 도둑놈들이 비석이니 망부석이니 죄다 훔쳐 갔어 훔쳐 가지고 가선 지금은 묘이가 없어. 나만 알지만 거기서 도굴꾼들이 와서 묘이를 다 봤네. 그 속이도 가 왜 저기 유물 넣잖아? 유물 (조사자: 예.) 그것까지 다 캐 갔어. 다 캐 가지곤 납작하게 있어. 그래 황씨네들 보고 얘기했더니 안 찾네 안 찾아. 그라고 또 하나는 노정승이라고 있어, 노정승 (조사자: 노종승?) 노정승. (조사자: 노정승.) 정승은 정승이니께 (조사자: 노정승.) 아 옛날에는 정승이면 대통령 답 아니여? 저 임금 답. 노정승이 아 거는 황정승이고 이 용수 마을이라고 글리 구향 왔어 또. 세력이 밀려 가지고. 그러니까 고기 살다가 또 남편이 죽으니까 어떻게? 그래 조기서 저기 공동 묘지 너머 고기다 썼어. 비석 다 그렇게 되면 그 자손들이 그 요기서 저기 했으면 그 보이는 땅은 다 그 사람 땅인겨. 그럼 그 차지하려고 도둑놈들이 비석까지 전부 뭐 같다가 냇가로 죄 파묻었어. 아, 우리도 뭐 그런 경우 당했는데 그런데 못 찾지. 그래도 얘기해 줘도 그런 교환해선지 얘기하니께 아들하테 얘기하니께 아들한테 얘기하니께 찾을 생각없어. 그래서 거기도 도굴 해가서 없어. 논되고, 논되고 말았어.

요 아산군으로 해서 이순신 장군 응? 이순신 장군이 요기 뱀발 살았지. 뱀발서 그래 거기 가가지고선 참 공 많이 세우고 저렇게 해서 묘이가 뱀발은 지금 저기해서 거기다 저기해서

관을 맡기다 맨들어 냈어. 산소는 요기 음봉 요깃어 요기다 썼어. (조사자: 이순신 장군에 얽힌 얘기는 없어요?) 응? 이순신 장군이야 아 저 임진왜란 때 원균이한테 또 몰려 가지고 징역도 같다가 또 안 된다고 해서 또 끄내 가지고선 저기해서 (조사자: 그렇게 알려진 거 말고요 우리가 역사 속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일화 같은 거 없어요?) 요기서 살았지 요기 동천리 고기 동천리서 살았다. 아, 그러디 그래서 애들 대장이었었지. 애들 대장 (조사자: 애들 대장?) 인저 무관, 무관될려고 그러고 인저 군인 훈련 많이 하고 이랬디야. 그랬다는 거지. 그래 어떤 어떤 중이 어떤 중인가 큰장사가 왔더라. 아 아, 여기 무이 인저 훈련을 하고 있는데 커다란 사람이 와서 “너 순신이가 누구냐?” 그러더라. “나다.” “뭐? 너 쪼그만 놈이 어른한테 ‘나다?’ 그럼 너 나하고 시합 해볼래?” 광목을 저 왜 저 무당들 왜 펼쳐 건 너 간 거 모냐. “너 이거 단순히 이렇게 해서 찰라 볼래?” 이순신 장군이 그랬디야. 그러니까 “아 그거 못 찰르냐” “찰라 봐라” 찰르긴 뭘 찰라 이순신 장군은 대번에 이렇게 해서 딱 찰라 내니까 “아이쿠” 그리고 그게 도사였디야. 도사 도사 도사가 이순신 장군 가르쳐 줄려고 그랬다는 거지. 그리고 난 몰라 인저.

저기만 알지. 온양 온천이라는 건, 온양 온천, 뭐, 뭐, 생긴 유래는 알지.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짓는디, 아, 눈에 가니께 티끌이 많이 나 니렁기, 벼가 안 되고. 만날 가보면 뜨겁단 말야, 물이. 저의 눈 티끌이, 그 이기 이상하다 해서 가서 아 그때 뭐, 그 옛날이야 알 수 있어? 아 인저 이제 그 사람은 뭐 돈이 있어 뭐 있어. 해가지고 내려와 가지고선 친구한테 얘기하니까 “아, 그러. 가 보세.” 가보니까 손을 못 대겠네. 뜨거워서. 그 물가시 닭 닭을 튀기여. 닭을 튀겨, 튀겼어. 아, 이거 안 되겠디야. “친구. 나하고 협조해서 누구 아는 사람한테 좀 해가지구선 온천물 개발하자. 그럼 그때 바. 나는 내 눈이니께 난 알지 못하니까.” 해가지구선 기술자 데려와서 보니까 온천수거든 고기만 아니래도 온양은 뚫우면 다 물이 나와. 그래가지구선 온천수가 개발되었다는 그렇다는 말만 들었지 뭐.

유래를 한번 얘기 해줄까? (조사자: 이동네 성씨요? 어떤 성씨요?) 백전 백전 조씨 백천 조씨네 (조사자: 백전?) 백찬 (조사자: 백천 조씨요?) (조사자: 아, 백천) (조사자2: 백천 조씨.) 유래를 한번 (조사자: 조선할 때 조짜예요?) 응? (조사자: 이거 어떻게 쓰는 거지.) 나라 조짜지 아이 초서니까 웃음 윈은 이렇게 쓰는 거야 (조사자: 예, 그냥 많이 쓰는 조씨.) 백천 조씨가 여기서 그전에 살았는데 참 부유하게 살았지.(조사자: 예.) 그러디 아 이런 얘기해달라는겨? (조사자: 예, 맞아요) 하루는 중이 와서 중이 와서 (조사자: 시주?) 시주 좀 하시우 했디야. 그러니깐 사주는 고사하고 따구를 때려 보냈디야. 멀쩡한 놈이 얻어서 땡긴다구 (웃음) 그 인저 중이 참 분해서 가서 가서 한 두 달 만에 인저 변장을 하고 왔어. 변장하고 왔어. (조사자: 변장을 하고 왔다고요?) 변장을 하고 왔어. 그 인저 “집에 계시오?” “누구요?” “나 팔도에 다니는 엄진사입니다, 엄진사.” (조사자: 예?) 진사라고. 진사는 아무도 출입하는 거기든 응, 뭐 그러면 들어오시오. 인저 복수하러 간 거여, 맞은 거. “그래 어떻게들 댁내 무고하시오?” 그러니까 아 이 “그렇지요, 뭐.” “상을 보니까 어찌 인저 상을 당한 모양 같혀.” “아 상당한 지 한 삼 개월 됐다고.” “그러.” 인저 주머니에서 쇠를 내놓았는데 쇠 나침반 “나 진사해도 난 지관도 하고 나 볼 테이니 어따 썼는지 가보자”고 산소에. 가보자고 해서 갔네. 아 가서 “여보시오 조씨 이거 좌향을 잘못 냈어, 응, 좌, 좌향은 잘못 냈어” (조사자: 좌향이요?) 그래가지구 그래 인저 좌향을 일로 틀어야 되여. 아 그러니까. “그

러지요.” 대번 트네 동네 사람 불러가지고 좌향을 트는디 아 파 보니까 뚜껑을 떠 보니까 그 천에 있는디 요기 가슴에 시체를 파보니까 이만한 구슬이 있거든 구슬. 구슬 이 황소가 뭐 일어날려고 뿔다리만 못 일어 나더래 (조사자: 황소여?) 구슬이여 구슬. (조사자: 아 구슬이여.)나도 많이 봤어, 아 인저 대번 인저 뚜껑을 뜨니까 그건 대번 그 날라가 버린 겨. 날라가는겨 날라가고 나서 인저 파서 요쪽으로 좌향을 트니 좌향을 틀었어. 그래가지고 인저 그 좋은 자리를 그 좋은 자리를 했는디 아 요기 산이 굉장히 많았지 . 부자였지 부자가 동냥한 두어대만 주면 되는 거 안 주어서 그렇게 됐지. (조사자: 그 원래 묻힌 자리가 좋은 자리였는데.) 그렇지, 좌향을 요렇게 틀었지. 그래가지고선 와선 와서 2-3년 내에 싹 망했네. (조사자: 아.) 망했어, 저 죽었지 저 죽었지 아들 죽었지 아들 죽었지, 며느리하고 인저 손자 몇만 남았는데 며느리가 어떻게 살어? 응? 여기서. 뭘 머슴 붙어가지고선 머슴하고 머슴 붙어가지고선 저기 안산으로 머슴하고 인저 남 부끄럽다고 이사갔다는 얘기에. 그러이 종적 없지 그랬다는 기여.

맹고을 맹정승이(조사자:네) 그 온양 저기 온양 온양 저 구온양, 저기 거가 사는데 (기침) 그 낭반이 맹정승을 하는디 거기, 거먹소를 타구선 쯤, 이 요기 요 앞산 산꼭대기로 서울을 땡겼다는 기야. 여기, 일로, 요기 요 웅기진 앞으루 땡겼다는디, 쯤, 맹사성 아버지가 쯤, 인제 집에 오면 또 손님이 오잖아? 자기 아버지가 쯤, 들어서 밧을 밧을 매고 그러면 자기 아버지는 쯤, 인저 친구가 하는 말이 아, 저 높은 누구냐고. 우리 일꾼이라고. 응? ○니저 그랬디나. 우리 일꾼이라고 그래 와선 일로 꼭 그냥 꺼먹소를 타고 소도 꺼먹소여. 꺼먹소 타고 올리 요 요 요 산이루 해서 쯤, 서울 갔다는 기야. 가서 잘 했다는 거지. (조사자: 아 니 아버지 보고 일꾼이라고 그랬다면서요?) 그러. 그랬다는 기여.

라. 음봉면 마을 4 (쌍용 1리)

1) 조사 일정

1993. 6. 28., 박은실 기록

숙소에서 오후 3시에 출발하여 미리 약속이 되어 있었던 쌍용1리 이종은씨 댁으로 찾아갔다. 이야기를 잘 한다는 소문을 듣고 이종은씨에게 많은 이야기를 기대하였으나, 인근에 있는 연암산에 위치한 절과 바위에 대한 설명과 마을 이름 유래에 대해서만을 간략하게 들을 수 있었다. 이종은씨 소개로 같은 마을의 방부단 할머니 댁을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이어서, 양지마을이라고 불리는 쌍용 2 리에 갔으나 구연할 만한 사람을 역시 만나지 못하여서, 쌍용 2리 노인회관으로 향하였다. 쌍용 2리 노인회관에서 미리 와서 조사 중이던 3조와 합류하여 안남식씨에게 <박문수가 묘자리 봐준 얘기>와 이런 저런 얘기를 듣다가 5시 30분경 조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다.

2) 마을 개관

【음봉면 마을 4】

337-860 충청남도 아산군 음봉면 쌍용1리

1993. 6. 28., 한정선 조사

진달래가 많다하여 ‘붉을 자(紫)’ 자와 ‘아래 하(下)’ 자를 써서 자하골, 자골 또는 자하동이
라 하였다. 이곳의 이장 방효문(方孝文)씨에 의하면 이곳에선 과수원, 낙농을 많이 하는 편
이라고 한다.

지리적으로 마을끼리 서로 멀리 띄엄띄엄 떨어져 있어 한적하고 조용한 느낌이다. 길도 넓
게 잘 닦여 있고 양옥집이 많이 보이는 등 문화적인 면이 많이 보였다.

그에 반해 국민학교는 쌍용 2구에 있는 쌍용국민학교까지 다녀야 하고 중학교는 성환쪽으
로, 고등학교는 성환이나 천안으로 다녀야 한다. 쌍용사, 개한사 등의 절이 있고 교회가 있
다. 지금은 인구가 많지 않으며 전래되는 민속행사는 거의 행해지지 않는다.

3) 구연자

【쌍용리 구연자 1】

음봉면 쌍용 1리, 이종은(李鍾殷), 남, 57

1993. 6. 28., 김연아 조사

중학교를 2개월 정도 다니다가 6.25로 인해 중퇴하고 말았다. 현지에 13대째 거주하고 있
으며 과수원과 논농사를 하고 있다. 하얀 운동복 차림으로 나이가 젊은 만큼 주름이 많다거
나 허리가 굽었다거나 하는 특징은 없었다. 74년 처음으로 동네 이장을 맡은 이래 만 6년
동안 지도자의 위치에 있어도 보고 지금도 노인회장으로 계시면서도 말하는 도중 “내가 뭐
아나...”라고 말하는 등 굉장히 겸손하였다. 그러나 이야기판을 그렇게 능동적으로 이끌어가
지는 못했다.

【쌍용리 구연자 2】

음봉면 쌍암 1리, 안남식(安南植), 남, 75

1993. 6. 28., 김연아 조사

대학을 졸업했고 현지에서 10대째 거주하고 있다. 과수를 재배하고 있으며 키가 크고 마른
편이며 나이에 비해 목소리도 크고 정정하다. 보통 구연자들이 허공이나 담배를 물고 이야
기하는데 반해 이분은 청중의 눈을 똑바로 보며 이야기하고 대단한 자신감을 나타내었다.
말도 거침없이 빠르게 하고 그 당시에 대학까지 나왔다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듯하였다.

4) 설화자료

【쌍용리 설화 1】

음봉면 쌍용리 노인회관. 1993. 6. 28., 박은실, 한정선 조사

이종은 (남, 57)

연암산 유래

쌍용 1 앞

우리가 경주 이가거든, 경주 이쨌데 우리가 지금 십삼대 살고 있어. (조사자:오래 사셨네요, 여기에) 십삼대면 그러니까 일개 연대로 삼십년으로 보통으로 잡는데 삼십년으로 보면 사백년 역사가 걸렸다는 얘기가 되고 연암산에 대한 그 유래라고 하면,(조사자:연암산이 어디 있는대요?) 연암산이 이 뒤에 느티나무가 굉장히 굵은 것이 있거든. 요 산 뒤 그 제일 꼭대기 상상봉이지. 그러니까 제일 그 굵으면 나무가 하여간 연수는 우리가 모르고, 그래서 연암산이란 유래는 봉우리 바로 그 밑에 바위있는데 바위가 있는데 하여간 모자 형식으로 생겨서 이 앞 채양같이 생겨서 비가 와도 그 밑에 들어가면 사람이 비를 안 맞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생겼다고. 그래 여기서 보통 부르면 남바위라 그래. 남바우라고 그 전에 옛날 노인들 쓰고 땡기던거 학생들 (조사자:아, 예) 잘 모를 거여 아마. 거기에 대해선 유래된 걸로 알고 있고 그 한쪽엔 그렇기 인제 모자 차양과 같이 그렇기 생겼고 또 한쪽은 아주 그냥 이렇게 절벽같은데, 거기에다 인제 제비가 집을 지었다 해서 제비 연(燕)자를 써서 연암산이다, 제비가 집을 지어서 제비연(燕)자, 바위암(岩)자를 이렇게 써 가지구 (조사자:예) 연암산이다 이렇게 부른 걸로 내가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위에 가 보며는 느티나무가 큰 게 굉장히 큰 것이 그것이 늙어서 고목이 되어 쓰러진 형태에 옆에서 또 인제 그게 인제 다시 나가지고 지금 굵은 나무가 있는데 거기가 이 근방에서는 제일 넓지. 우리가 알고 있는건 팔백오십한 팔백 한 오십메다 팔백 한 오십메다 되는 걸 넘겼드렸다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길 가보며는 참 정확히 연대를 모른다구. 성을 쌓았어, 성을. 성을 쌓아 아주 제일 꼭대기 느티나무 옆에 뺨들려 이렇게 성을 쌓아 갓구 문이 있는데 문형태도 그냥 여긴 안 쌓았으니까 문이다. 인제 이렇게 보는겨.(녹음불량) 여기 성을 뺨들려 쌓았는데 언제 뭇일 때문에 쌓았는지 잘 모르고 그렇게 쌓았고 이쪽으로 굉장히 넓은 판판한 그 저기가 있는데 이 밑으로도 한 칠 팔십메다 한 오륙십 메다 이상 칠팔십 메다 정도로 성을 쌓았던 말이야. 근데 그것도 우리도 우리도 그걸 언제 쌓았 거 잘 모른다고 그거, 연대는. 연대를 잘 모르는데 그렇게 여기가 그 옛날에는 여기가 전쟁터로 이용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거기서 보면 천안은 뭐 수원까지 맑은 날 6.25 때 망원경 같은 걸로 한 사령관이 올라가서 봤는데 맑은 날은 수원까지도 보인다고 그래. (조사자:지금도 그 자리가 남아 있나요?) 남아있지. 요번에 그 국민학교 학생들이 봄에 소풍을 거기로 왔는데 그 선생님들이 소풍 하루 전에 와가지구 그 전에 다니던 길이 아주 그냥 다 없어지고 사람이 안 다니니까 없어지고, 그래가지구 길을 만들어 가면서 만들어 가면서 인제 만들어 놓구선 국민학교 학생들이 놀러왔는데 이 근방에선 제일 그것이 뜻이 있는 산이다, 인제. 옛날 그 참 전쟁터로 사용했던 그 가끔 흔적이 보이고 또 그 가운데로 거기에 성을 쌓고 한 걸로 보면 이 자리가 그냥(녹음불량) 옛날에 봉화불이라고 학생들이 알란지 모르겠어. 통신이 없을 때 (조사자:네)그러니까 이쪽에서 불을 어떤 방법으로 놓으면 저쪽에서 인제 이게 무슨 신호다 하는 봉화불을 놓던 산이라고 그러. 그러기 때문에 그 사실 6.25 직전 후까지는 오는 사람이 많이 왕래를 했는데 지금은 뭐 산에 별로 갈 일이 없거든. 그전에는 연료가 전체가 다 이 산에서 나오는 연료를 땔지만 지금은 연탄 아니면 다 기름을 때니까 지금은 사람이 별로 안가기 때문에 길이란 참 자세히 보면 흔적이 있고 그렇잖아. 사람이 못 다닐 정도지, 나무가 그냥 무성하게 커 가지고. 그렇기 알고 있고, 또 그 남바위라는 산 밑에도 가보며는 예, 옛날엔 거기 절이 있다고 그러지, 절이. 여기

서 부르기를 절, 절골이라 그러지. 절터, 절터라 그러는데 거기를 가보면 아주 아래 판판하게 그 어떤 옛날에 집이 있던 형태가 그대로 남아 있고 또 축대도 돌로 쌓은 게 있고 돌로 만든 부처가, 부처가 절단난 것이 그 근방에서 많이 발견됐다고. 그래 인저 절이 있었던 것만은 틀림없다고. 근데 옛날 어른들 말씀이 그 절이 있었는데 뭐 빈대가 하도 많아서 사람이 살질 못하고서 그냥 철거를 했다구(조사자:네) 그런 그 유래가 지금도 남아 있고... 거기 도 참 대지가 완전히 이게 판판하게 다듬어졌고 뒤에나 앞에 축대도 전부 쌓았던 흔적이 지금도 역력히 남아 있구, 그렇지, 그래구(조사자:여기 쌍용사는 최근에 지은 거예요?) 쌍용사는 글썽 한 이십년 넘었을까?(녹음불량)최근에 지은 거지. 또 그 넘어 가면 개한암이라고 또 절이 있다구.(조사자:예)그것이 참 그 노인 그 한분이 (녹음불량) 또 그 다음 그 따님이 그게 다 거기에서 경영을 하다가 또 그 분 돌아가고(녹음불량) 비어있는 상태고(녹음불량) 그런 정도니까 지금 이 절의 구실을 못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 쌍용사에는 지금 손님이 이 근방에선 제일 많이 오는 걸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오고 있고 그리고 또 한가지 이게 이 산에 연암사로 올라오는 도중에 각시 바우라고 여기서는 그러는데, 바위 형태가 입구(口)자 형식으로 이렇기 됐단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되가지구 이 밑에 공간이 꽤 넓은데 한 전체 면적으로 따지면 이 넓이 이상 될꺼여, 아마. 여기도 비가 와도 그 밑에 들어가 주축 앉았으면 비를 피할 수 있어, 비바우라고 그러는데 각시 바우라고 한 이 삼백메다 더 올라가면 또 그 신랑바위라고 바위가 이렇게 형태는 고르지 않지만 이렇게 보면 꽃대석 모양으로 이렇게 선 데가 있다구 그래서 신랑바위, 각시바위 이렇게 부르는데, 인제 형태가 그렇게 생겨서 매끄럽게 인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지은 것 같고. (조사자:여기에 얽힌 얘기 없어요?)그런 자세한 얘기를 내가 잘 몰라서 그냥 그렇게 전설이 남고 이 동네를 옛날에는 자하동이라 그랬는데(조사자:자하동요?) 자하동이라구 인제 그랐는데, 지금은 잣골이라 그러지. 일명 잣골 (조사자:잣골요?)잣골이라구, 잣골이라구, 인저. 그 참 뒤에 그 진달래꽃이 참 흔히 피어가지구 빨간 그 형태를 붉을 자(紫)자하고 인저 아래 하(下)자를 써서 자하동. 그 빨갭게 물든 그 밑에 인저 동네가 인저 이런 뜻인 거 같으여. 그렇게 해서 지금도 잣골이라고 부르는 형태가 됐고. 이 앞에 있는 느티나무도 내가 볼 적이는 아마 사백년 내지 오백년(녹음불량) 여기가 쌍용 일군데(조사자:네) 여기가 옛날에 옛날에는 그렇고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이 넘어는 이씨들이 인저 우리 경주 이씨들이 많이 살고 그래서 이뜸이라 그러구 뭐 이기 이뜸 요 독 넘어 그 독 넘어에는 방씨들 그분들이 온양 방씨네 그 분들이 살아서 방뜸이라고 옛날부터 불러 왔는데 거기 지금은 현재 뭐 방씨가 몇분 살지는 않지만 옛날부터 그렇게 불러 왔다구.(조사자: 쌍용리라고 한것은 언제부터 그렇게 불렀나요?)그러니까 인저, 이것이 내가 볼 적이는 행정 구역이 옛날에는 몇 단위로 따로 떨어진 게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이 잣골 자하동 뭐 이렇기 불러 왔는데 행정구역이 만들어지면서 용이 인제 두 마리가 뭐 여기 월랑리로도 학생들이 갔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도 이거 용화산이라고 있거든. 용화산 이 연암산에는 용 두마리가 인저 쌍룡이다 뭐 이런 얘기를 흔히 하는데 용화산에도 가보몬 우리가 국민학교를 거기 월랑국민학교 알런지 몰라도 왜정 때 거기로 입학을 해서 한 삼년 다니다가 해방이 되고 인제 그때까지 여기 굴이라고 해서 그 큰 동굴이 있는데거기도 인제 사람이 들어가서 쫓이 어딘지 몰른다 뭐, 우리가 들어가보면 일종의 그런 점도 있고 쌍룡이라고 그랬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 옛날에 어른들이. 우리가 뭐 연대를 정확히 알구서 인제 고려시대다 뭐 이조시대다 유래만 들은 것 뿐이지, 연대는 정확히 모르는데 연암산이라는 유래는 뭐 바위에다 제비집으 짓고 그래서 제비 연(燕)자 바위암(岩)자를 써서 연암산이다 이렇게 불렀다 인제.(조사자:예) 지금도 거기가 보며는 기도

하는 사람들이 일년에 한 두 사람씩 그기를 다녀가는 흔적이 보인다구(녹음불량) 백일기도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구서 (녹음불량)바위가 옛날 남바위 같이 생겼어. 가보면 고등학교들 그 채양같이 이렇게 생겨 가지구 그 밑에는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구 그래 생겼는데 지금은 별로 안 올라가 보니까 그 형태가 변하진 안했을 거구.

【쌍용리 설화 2】

음봉면 쌍용리 노인회관, 1993. 6. 28., 박은실, 한정선 조사.

안남식 (남, 75)

박문수가 묘자리 봐준 이야기

박문수 박어사가 (조사자:예) 시골에 한번 가려니까 어느 여인숙에서 자자니까 말이여. 아주 키 큰 사람이 하나 있더라.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갈 때다 말이여. 그 여인숙비도 안 내고, 그냥. 여인숙비를 내라니까 주머니에서 여인숙비를 내더라. (조사자:예) 여인숙비를 내더라,돈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서.박문수가 그 사람이 하도 이상하니까 말이여. 그 품에 받았단 말이여, 잉? 근데 인저 한번은 가다 보니까 어느 시골에 있는데 말이여 사람이 죽어서 상 난리여, 사람이 죽어서 난린데, 사람이 죽어서 난리란 말이여. 그래 인저 그 시골 사람이 죽으면 지관이 필요하잖어. 지관 그 지관을 구하는 중이란 말이여 지관을 구하는 중인데 박어사가 박어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해야겠다 말이야, 자기가 돈이 필요한 데가 있어서 말이야, 근데 가보니까 박문수, 박어사가 가만히 보니까 그 뭐이 신체1)가 크다 말이야, 자기가 보니까 박문수 어사가 하는 말이, (녹음불량) 그 사람들 다 잡았는데 다 쓰고 인저 간 뒤에 말이여 상주집에 가서 말이여 단신네 집이 세상 몰 그 무엇인데 말이야 거기에 신체가 없단 말이야 거기에 신체가 없단 말이야(조사자: 아, 아) 그 집은 대갓집인데 상남리 아여? 신체가 없다니까 말이여. 아니 그러면 널 가2)파 보라 말이여. 그럼 저기서 돈을 내기로 했어 시방 얼마나 많은 한 이천만원 아마 인저 돈 내기로 한 모양이여. 이것이 신체가 있으면 내가 이천만원 주고 없으면 나 이천만원 달라 말이여 이 조건부였던 말이여 이렇기 그 이튿날 인저 사람들을 풀어 가지구 가보니까 사실 신체가 없어요 신체가 없단 말이여. 근데 박문수 박어사는 인제 그 돈이 자기가 돈이 필요해 필요해서 인제 그 이천만원 받았단 말이여. 게, 나중에 동네 사람들 풀어가주가 파 보니까 사실상 신체가 없어 나중에 인저 어디가서 알아보니까 그럼 근데 인제 사정할 거 아녀. 신체 좀 찾아달라. “당신 알면 좀 찾아주시오.”말이여 박문수도 박어사가 그 아래가서 신체를 찾아줬어. 이것이 시방 신체가 이 아래 있단 말이여. 그 가서 파 바라 이거지 아 그래서 인저 사람을 시켜서 파 보니까 사실 신체가 있단 말이여 그 인제 돈 이천만원 꼼짝없이 줬지 있져, 그 인저 박문수 박어사가 인제 이천 받았단 말이여. 돈 이천을 받았단 말이여. 이천을 받아가지구서 인저 박어사가 어디 가니까 근데 그 키 큰 사람이 또 쫓아와 그 인저 어느 여인숙에서 자구 말이지, 여인숙에서 잤는데 돈 없다는 사람이 아침이 또 돈 내라니까 주머니 털더니 또 돈이 그 돈이 또 나와 그 여인숙 돈 줬단 말이야, 잉? 그래 인저 박문수 박어사가 어디 바빠 가니까 어느 돌담 밑에서 어느 젊은 아가씨가, 한 이십대 되는 아가씨가 빌어요 “올 아버지 좀 구원하게 해 달라.”구 말이여 잉? 사뭇 빌거든 돌 돌 밑에서 말하자면 바위 밑에서 말이야, 잉?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공금을 횡령했어. 공금을 횡령한 자기 아버지가 낸은 인제 처형당해 죽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살려달라고 그 여자가 길목에서 빌거든 거기서 박문수 박어사가 인저 돈 이천 쓸 디가 나왔단 말이여. 그것이 그 사람이 공금을 횡령한 게 이천이

여 이천 게 인저 게가 마침 그 아 그 여자가 백일제전을 기도하는 기여(녹음불량) 마침 박문수 박어사를 만났어요 그 인제 기이한테 사실 얘기를 물어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시방으로 말하면 지방에, 말하자면 그 지금 같으면 말하자면 경무과장3) 썸 되는 모양이지 그제 공금을 횡령했단 말이여 애전에 시방 같으면 껌했으면 옛날에는 도둑이나 공금횡령같으면 죽여, 죽여 원 마음대로 거든 군수 마음 대로 그냥 죽였어 죽였어 그대로 그 인저 그 뒷날 가만 그 뒷날 인저 그 저기가 그래. 그래서 인저 박문수 박어사가 개한테 돈을 주었어요, 내가 돈이 이천이 있단 말야 그 이천을 줘 가지구 저의 아버지를 살렸어 개가 정성껏 정성을 들여 가지구서 말야 그대 저의 아버지가 살았어 (조사자:예 박문수가 도움을...)박문수가 돈을 벌어서 가지구서 그 처녀가 정성껏 우리 아버지 살려달라고 (녹음불량) 해 가지구서 말하자면 인자 거의 아버지 살리구, 박문수 박어사는 좋은 일 한거지 인제 (조사자:예) 그거야.

<주>

- ① 시체
- ② 내일 가서
- ③ 경리과장

마. 음봉면 마을 5 (쌍용 2리)

1) 조사 일정

1993. 6. 28., 권민정 기록

조사 첫날인 28일은 숙소에 짐을 풀고 3시에 나와 버스를 타고 쌍용 노인회관에 도착했다. 쌍용 노인 회관은 인근의 노인들이 모두 모이는 장소라 사람이 많았는데 화투를 치느라 정신이 없어 그리 큰 호의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노인중 노인회장을 맡고 있는 문희찬씨가 관심을 보이며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연배에 있는 효자묘>, <청렴결백한 맹사성>, <이지함의 예견>, <온양의 어의정>, <김대성의 효성으로 지어진 불국사와 석굴암>, <조선임금의 이름에 얽힌 이야기>, <백제의 이름이 '쿠다라'인 이야기>, <삼효와 명당자리>, <거지였던 주원장이 아버지 묘자리를 명당자리로 찾은 이야기>, <жат골의 유래>를 구연하였고, 이만수씨가 <허새비 이야기>를 구연하였다.

그러던 중 쌍용2리로 조사를 나갔던 5조가 찾아와 함께 이야기를 듣다가 더 이상의 이야기는 나오기 어려울 것 같아 6시에 조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다.

2) 마을 개관

【음봉면 마을 5】

337-860 충청남도 아산군 음봉면 쌍용 2리

1993. 6.28., 황재영 조사

음봉면 쌍용 2리에는 70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그다지 넓은 마을은 아니었으나 길이 잘 포장되어 있어 마을의 전체적인 인상은 부유한 느낌을 준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논농사를 짓고 있지만, 수박 농사도 지어서 여름에는 좋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집들도 꽤 있다고 한다. 교육 시설로는 마을 내에 국민 학교가 하나 있다. 마을의 어린이들은 그 국민학교를 다니지만 상급학교는 인근 천안이나 온양으로 간다고 한다. 남녀의 비율은 거의 비슷하고 노인층이 많다고 한다.

전해내려오는 민속행사는 없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다지 그 부분에 관심이 없는 듯하였다.

3) 구연자 조사

【쌍용리 구연자 1】

음봉면 쌍용리, 문희찬(文義燦), 남, 75

1993, 6, 28., 소진희 조사

외모상의 특징으로는 돋보기 안경을 쓰고, 얼굴은 검고 광대뼈가 나왔으며, 머리가 하얗고 드문드문 검은 머리가 보였다. 그다지 큰 특징은 보이지 않으며, 조사자가 찾아갔을 때에 노란 모자를 쓰고 계셨다. 구연시의 독특한 버릇으로는 구연 도중, 자주 손바닥으로 무릎이나 양말을 쓰다듬었고, 눈을 자주 깜빡거렸다. 생각할 때나 말이 막힐 적에는 손가락지를 끼고 고개를 숙였다. 또한 구연할 때에 손짓을 하고 “거시기, 그러니깐, 뭐시기”라는 말을 자주 한다. 의식상의 특징은 자신은 오직 유교만을 믿지, 미신이나 종교는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 충효를 강력히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뚜렷한 선비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하겠다.

청중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듯 놀이에만 열중하였고 때로는 귀찮아 하는 듯 하였다

【쌍용리 구연자 2】

음봉면 쌍용리, 이만수(李萬洙), 남, 79

1993, 6, 28., 소진희 조사

외모상의 특징은 체구가 말랐고, 눈은 작고 깊게 패였으며, 얼굴에 주름이 많다. 피부색은 까맣고, 웃을 때에 앞니 하나가 빠진 것이 보인다. 구연시 독특한 버릇은 “학상들 한티 이런 말 하는게 아닌데 말여”, “이런 얘기는 안 해도 되는데”라는 말을 자주 하고, 또한 혀로 입술을 핥으면서 얘기하는 버릇이 있다. 의식상의 특징은 청년들은 할아버지 얘기를 끝이 안들어 얘기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였다. 청중들의 반응은 간혹 말참견을 했지만 이야기가 진행되자 놀이에 열중하였다.

4) 설화 자료

【쌍용리 설화 1】

음봉면 쌍용리 노인회관, 1993. 6. 28., 권민정, 황재영, 소진희 조사

문희찬 (남, 75)

거지였던 주원장이 아버지 묘자리를 명당자리로 찾은 이야기

그리고 그 얘기 한마디만 하고 끝나 이제. (조사자:예) 황해도 가면은 멸악산이란게 있어. (조사자:멸악산이요?) 멸악산이란게. 주x이예요. 지리에 보면은 멸악산맥이라는 그 산맥이 있어요. 거기에 주x인데 거기 저 아래서도 보여요. 주원장이라고 청나라 태조가, 태조의 아버지가, 아버지 묘가 보여.(조사자:거기에 묘가 있어요?주원장 묘가요?) 주원장이라고 만주족인데 중국을 침범해서 명나라 쓰러뜨리고 청나라 세운이가 있어요. 주원장이 아버지묘가 있어요. 주원장이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실때 신세는 거지대장이예요. 주원장이가. (조사자:주원장이요?)예, 주원장이 이승계가 다 그 점에 정승을 그렸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가서 아 여기다가 모셔야겠다고 하고서 할려는데 그 근방에 지관이 보니까 정승날자리다 이거야.(조사자:그 자리가요?) 그 자리가. 그러니까 이 지관이 욕심이 났어요. 그래서 이 지관이 금장이라 그러죠. 장사를 맡릴 금. 금장이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대감의 산이다 이거야. 자기가 욕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 그럼 안 되겠습니까. 판데로 가야죠. 그러고서 이제 쫓아지고 어정어정 올라가는거야. 아 여기다 모셔야 겠다고. 그 지관이 쫓아간거야. 그 집이 아무다 해도 정승자리거든. 쫓아가니까. 왕후자리. 왕후자리라는 것은 중국은 천자가 있죠. 제일 좋은 자리가 천자예요. 천자밑에서, 한국의 왕도 왕이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대감이 자리잡은데라 했는데 또 말려야 겠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게 정승의 산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거지가 무슨 힘이 있어. 올라가는 거야. 그 지관이 하도 신기하니까 쫓아 올라갔어. 근데 보니까 천자 날 자리야.천자날 자리.(청중:하하하) 그러니까 그 쪽에는 그 지관이 감히 이제는 못해.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 하여금 천자로 만들기위해 하느님이 지시해서 내가 정승자리,왕후자리 보는 것도 하느님이 시킨거니까. 이 사람 팔자가 천자 될 팔자니까 이제 감히 말리다가 내가 천벌을 받는다 이거야. 그냥 내버려 두니까 죽어라고 깊이 파. 애 너 파기도 힘든데 혼자서 깊이 파느냐 하나냐. 우리 아버지가 평생에 추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옷이라도 두겹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깊이 팝니다. 풍수쟁이 니가 어느만큼 파고 몇시에 하관을 하면은 아버님이 금시발부 하겠다고 하는게 나와. 금시발부(조사자:금시발부요?) 금시발부. 갑자기 높아지는거.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내버려 뒀다 이거야. 그래서 이놈이 어떻게 맞추나 했더니 파놓고선 나가 자빠져 있는거야. 야 구덩이를 봤으면은 덮어야 하는거 아니냐. 아 우리 아버님이 추운 고생했으니까 저기 햇빛이 들때 해야 똑똑 들어 맞거든. 아무것도 모르는거 같은게.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천자가 내려면 이저 기치창범해서 군사가 기 들고 창 들고 칼 들고 군사가 웅우해서 천자가 난대는거야. 그런데 오시가 되니까 거지가 산소 쓰는데 아무게 지관이 정승자리가 금장이라 했다고 구경가자고. 술사가지고 이는 사람에 뭐 나무꾼이 낫 있는 사람 모두 모여 하관을 보니까 장정이 웅위하게 된거야.(청중:말 된다.) 말이되죠. 그렇게 해서 쓴 자리가 황해도 멸악산의 저 꼭대기에 있는 주원장 아버지묘입니다. 그 사람은 그것을 그만두고 자기가 품었던 뜻을 중국의 천자가 되기 위해서 중국땅에 들어가서 청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게 청태조예요. 주원장이가.

【쌍용리 설화 2】

음봉면 쌍용리노인회관, 1993. 6. 28., 황재영, 권민정, 소진희, 김지은 조사

이만수(남,79세)

멧돼지, 허새비 이야기

바늘 갈애, 바늘(조사자:예?) 그 터럭을 빼면은(조사자:멧돼지 털요?) 멧돼지 털 가지구 가죽을 뚫어. 거게. 털이 그만큼 질기단 말이야. 털이. 그러면 그 털 가지구서 이렇게 가죽을 뚫어요. 실을 꿰어요. 멧돼지 만나구서 살을라면 그냥 다 넘어가 아아 나무에 올라가면 죽어. 나무에 올라가면 죽어 (조사자: 멧돼지가 나무에 올라가면요? 올라가면 죽는대구요?) 아니 사람이 (조사자:사람이요? 사람이 멧돼지를 만나서 나무에)멧돼지 만나면 내가 살랑게 도망가야 할거 아니야. (조사자:예)어?(조사자:예) 나가 살라면 도망을 가야할 거 아냐? 나무에 올라가며는 멧돼지가 와서 어? 흠을 피가지고, 나무는 못 올라가잖어.(조사자:예) 땅에서 돼지가 (녹음불량)쉽거든. 한 (녹음불량)을 파도. 바우도 큰 바우라도 다 넘어가.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들이면 다 넘어가. 그만큼 시어대니까, 힘이. 그래가지구 그 다음에 거기를 가며는 나무에 올라가면 왜 죽느냐, 돼지가 나무 밑을 팔려고 주둥이로, 주둥이로, 주둥이로 파며는 잠깐 금방 넘어가버려. 산이도 가서 돼지, 멧돼지 만나서 내가 살을라면은 어디로 가는지 알아? 높은 바우 위에 올라가야 돼. 바우, 바우 말이여. 바우라면 알지?(조사자: 바위요?) 돌, 돌맹이 (조사자:예) 그거 올라가 섰이며는 돼지가 다가와도 똑 받아. 발이 족 발이거든. 암만해도 못올라와 바우 위는. 멧돼지는 발이 똑바르거든. 그래서 바우위로 올라가야 돼.

예전에는 (녹음불량) 학생들한테 이런얘기 하면 안되는데... 밤에는 우리는 술먹고 다니잖아. 집으로 가야하는데 허새비가 뭐냐하면 말야 낮이고 지나가다 만나면 씨름을 하자고 그래, 씨름을 하자고 하면서 이기면되는데 지면은 죽어. 가만있어봐 이런얘기는 곤란한데, 얘기해도 괜찮은가? (조사자:예.) 예전에 부인네들 에 참 이렇게 손자들한테 내가 이런 얘기하면 실례인데 (조사자:아니예요. 할아버지 저 목빠지겠어요.) 왜 여자들 부엌에서 밥을 해먹구 빗자루를 깔고 앉잖아, 빗자루를 깔고앉잖아 그러면 그게 뭐냐하면 이런 얘기 내가 안 할려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없는데 예전에는 여자들 이거나 얘기 않해야되는데...여자들이 불땔 적에 거기 허새비가 들깨장수가 되면 천하장사도 그 놈에게 져. 키가 크고 힘이 장사야 말하자면 빗자루가 후미진데 가다가 그거 만나면은 내가 담력이 있으면은 씨름 해가지고 그랭피롱 그랭피롱 모르지? 길거리가면 (조사자:깡패요?) 아니 풀 있잖아 (조사자:질경이?) 아니, 질경이는우리 약이고 기장풀이라고 그 풀이 아주 질겨요. 그놈을 붙잡아서 풀에 묶어 그 다음날 가보면 빗자루랑 째매있는 거여 (조사자:그럼 빗자루가 허새비로 변한거예요?) 여자들 아침에 불때고 저녁에 빗자루에 얹는거 몰라? 참나 그렇게하면 알거아냐. 참나원. 아이 알잖아(웃음) 그래서 나무에 묶으면 그 놈이 되고 (조사자:여자가 깔고 앉으면 그 놈이 허깨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조사자:예 감사합니다.)

바. 음봉면 마을 6 (원남리)

1) 조사일정

1993. 6. 28., 박미애 기록

조사 첫날인 6월 28일 중식 후 14시 50분에 숙소를 출발해서 원남리 노인회관으로 갔다. 장마인데도 노인회관에 노인이 한 분도 없어, 수퍼마켓에 모여있는 노인에게서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다. 노인들은 이 마을에 역사적인 사건이나 인물이 없다며 얘기해 주길 꺼려했으나, 김정진씨가 <국사봉의 산제>, <노장군과 시향제>, <원남리의 지명 유래>를 얘기하니, 곁에서 듣고있던 원도상씨도 <원남마을 발생 유래>, <원남리의 지명 유래>, <국사봉의 다른 이름 투구봉>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다.

조사 첫날 성과가 없어 맥이 풀린 상태에서 저녁때가 되어 내일을 기약하며 숙소로 돌아왔다.

2) 마을 개관

【음봉면 마을 6】

337-860 충청남도 아산군 음봉면 원남리

1993. 6. 28., 유주연 조사

음봉면 원남리는 85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마을이다. 인구의 남녀 비율은 50:50이고 청장년층 보다는 노인층이 많다. 주민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마을에 전해지는 민속 행사로는 국사봉에서 지내는 산신제가 있다.

3) 구연자

【원남리 구연자 1】

음봉면 원남리 128번지 김정진(金正鎭) 남, 68

1993. 6. 28., 권은주 조사

이 마을에서 37년째 거주하고 있으며 둥근 얼굴에 검은 피부로 약간 술에 취해 흥조를 띠고 있었다. 이 마을엔 역사적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가 별로 없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려 하지 않았으나 계속적인 질문에 <국사봉의 산제>, <노장군과 시향제>, <원남리 지명의 유래>에 대해 말했다. 그러나 이야기도중 반복이 많았으며 모든 장소의 지칭을 저쪽이라고만 하여 확실한 장소를 알기 어려웠다. 구연도중 주변 청중들이 중간중간에 말을 많이 끊어 순조롭게 구연하기가 어려웠다.

【원남리 구연자 2】

음봉면 원남리 258번지 원도상(元道常) 남, 74

1993. 6. 28., 권은주 조사

작은 체구에 온화한 인상으로 3대째 이 마을에 살고 있으며 한학을 배웠다고 했다. 구연시 손동작과 함께 시선은 조사자들에게서 떼지 않았다. 두 번의 큰 수술 후 기억력이 상실되어 전에는 이야기를 많이 알았는데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알고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조리있게 말하며 3대째 살고 있어서 그런지 <원남리 지명 유래>와 <원남리 마을 이 발생하게 된 유래>, <국수봉의 다른 이름 투구봉> 등에 대해 말했다.

4) 설화자료

【원남리 설화 1】

음봉면 원남리 마을 입구 슈퍼마켓, 1993. 6. 28., 박미애, 권은주, 최소정 조사

김정진(남,68)

국사봉의 산제, 노장군과 유씨 시향제, 원남리 지명 유래

원남,소동 1 앞

이젠 여기 여쭙 부락 여 원남리 한 부락인데 이쪽 부락이 저위에 (조사자 : 예) 산 위에 중간에 이 산신당, 산신당 산제 지내는 산신당이 있다고 (조사자 : 산제를 지내는?) 응 그게 원제 지내냐면은 (청중2 : 여, 여, 여기, 저 맞은 저기 ,여기 이산 이름이 국사봉이여) (조사자 : 국사봉이요?) 그렇지, 국사봉이지. (청중1 :국사봉, 국사봉) (청중2:국사봉인데...) (청중1:인간들이 할때는 국수봉이라고 해) 거기 중간에다가 중간에다가 그전 옛날에 말하며는 초가집 시방 여덟자 아홉자씩 집 저 놓고서 (청중2 : 그러니깐...) (청중1:옛날엔 소식을 할려면 시방은 전화가 있지만 전화가 없어 불로 화전으로 해서 소식을 전한겨 그게) 여기 성이 성이 있는데 성이. 조그만 성이지 (조사자:네) 고 밑에 고 밑에 산신당을 지어 놓고 산신당위해고 (조사자:산신당이요?) (청중1:산신당.) 산, 산 신령을 위하는 거여 (청중2:산신당은 고부분 몇대가 내려오고 해서 우리도 기억을 잘 못해 지금) 그 그걸 원제 (청중1 : 동네서 동네서...) 지내느냐면 (청중2 : 부락에서 인저) 음력 정월 정월달 날 잡아 지내는거여. 날잡아 지내. 날짜가 없어. 날잡아 날잡아 지내 (청중 2 : 그것도 정월 초 사흘날 음력으로다 1월 3일날) (청중1 : 부정이 있으면 물리는 거지?) (청중2 : 안물려여 그것도) 물리는게 아니라 (청중2 : 근데 인저 부정이 있을 것 같으면 물리는데 여하튼간에 3일날 고장이여요) 왜냐면은 (청중1:3일날로 고정이여) 이걸 돌아가면서 한 사람이 딱 제사 지내게 되 있어. 이 사람이 하다 (청중1:깨끗한 사람이) 이 사람이 하다 하는데 (청중1:아무 저기 저기...) 되어 있어. 그러면 거기다 뭘 갖다 놓냐며는 (청중2 : 생년월일 하고 고걸 다 파 또 두명이 파가지고선 두 사람이)운이 맞아야 돼. (청중1:행기복동을 따져서 운이 맞아야 돼, 행기복동을 맞춰서) (청중2:그해 운이 맞아 해당되는 사람이 산제 지내는 제주가 되는겨 거기) (청중1 : 그렇지, 깨끗한 사람이) 근데 뭘하며는 시루가 있어 (조사자:예) 떡을 하고 (청중2 : 그거 뭐 노인 양반들이 알지) 돼지머리하고 북어하고 그리고 제사 지내는 거여 (조사자:누구한테 제사 지내는 거예요?) 산신을 위해, 산신, 산신 (청중1:이 동네 원래 준례 준례) (조사자:예?) (청중1:준례) (조사자:준례?) (청중1:옛날부터 내려오는 준례) (조사자2:준례) (조사자 : 아, 준례) 산신을 잘 보여야 이 부락이 편안하다, (청중1:그래야 동네가 화목하고 부자되고

복되서 아무탈이 없거든 그래서 그것이 준례여.) 이제 그게 (녹음불량) 우린 모르지 근데 한번 없었었어. 없었는데 탈이나 이 부락이, 개도 물어가고 그래서 큰개도 물어가고 그래도 다 시방은 스텐트로 해냈지. 저 위에 중간에서 산 중간에서 (청중1 : 집을 지어놓고 항상 그걸 받들었거든) 일년에 한번씩 하는거야 (조사자 : 일년에 한번씩이여?) 일년에 한번 (청중1 : 3일날) (청중2 : 예 음력으로다 정월 초사흘 날) (청중1 : 초사흘날) 우리 원남리 원래가 조그만 동네가 촌동네가 별 역사가 없어

옛날에 역사 있는 참 뭐를 저기 켜지, 켜지, 노장군이라며는 그 (조사자 : 네?) 큰 비석을 (조사자2 : 노장군)노장군 저 아래 켜어 저 소동서, 소동서 객석을 하느디 (청중1 : 음 노장군 저기?)노장군 저기 켜는데 옛날 참, 장군을 오래되니까 저, 저 이 비석을 저기 망부석에로 시렁 덮으는 거 그러나 손이 안 나타나니까 그냥 버린거지 옛날 참(청중1 : 그 자손들이 나타나지 않으니깐 버린거 버려났다 그얘기지) 그러고 이 부락에서는 시방 이 시향, 시향을 알어? 시향지내는거 (조사자 : 시향이요?) (청중1 : 10월달에 제사 지내는거) (청중2 : 먼저 그 어떻게 다 얘기해요)시향을 원래가 6대조 7대조 다 시향지내는 거야 그 위로 다 지내는 거여 (조사자 : 시향제요?) (청중1 : 시향, 시향제, 10월달에 10월달은 어디나 다 하는겨) 그걸 10월달에 지내 음력 10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청중2 : 지금 집에서 저녁에 안지내는1 제사를 다 시향이라고 하거든 윗대 선조들이) 저 탄 저 공 같은 시내는 무척 많은데 여기는 산이 야산이라 별거 없고 여기 유씨네가 요 저쪽으로 동네 동네 뒤에 유씨네가 시향 지내는 집이 있어, 유씨네 원씨네가 시향 지내고 그런 거 밖에 없어.

요 근래에 저 저기 공장지는 산이가 옛날 이완용씨 산이요 이완용이가 조서 나라 팔아 먹었잖아 (청중1 : 이완용이 땅인데 팔아먹었지 총리대신) 이완용이 알어? 총리대신인데 저 공장 하는데 저 주원 공장인데 주원 회산데 그 땅 전부가 저리까지 땅인데 (청중1 : 옷나무가 많아서) 원이 저 전라도서부터 장항으로 이어지는데 이렇게 지나가는데 옛날 구질이 있어. 앓아 쉬어 갔다고 원남이라 한디야. 원이, 원이, 원이 쉬웠다고 해서 앓아 쉬어갔다고 해서 (청중1 : 그래서 원남이라고 하고) 옷나무골이 왜 옷나무골이나 (청중1 : 여기는 왜 옷나무골 이라고 하면 옷나무가 많아서 옷나무가 많아서) 저 골 안이 옷나무가 많아서, 옷나무이라 할라 하느디 1구 2구가 없고 원남리여, 원남리. 저 원뚝생이 원뚝생이라고 있어 원이 쉬어서 갔다고 해서 서울에 과거보러 가느라고 그래서 원남리야 여기가 저 (청중1 : 원뚝생이) 뚝생이 (청중1 : 원이 지나갔다고 해서) 그까 뭐냐면 옛날 (청중1 : 원이 원뚝생이) 원뚝생이라고 있고 원, 원, 원남리라고 하는게 (조사자 : 원뚝생이요?) (청중1 : 원남리에 지나갔으니깐 원뚝생이) 원이 지나다가 쉬었다는겨, 그분이 과거 보러가다 원, 원을 했던말이여. 전라도 저 장항에서부터 저기저 그냥 말타고 걸어간겨 여기가 직선길이여 서울가는 길이 전라고 저, 저, 군산서부터. 그래서 걸어, 말타고 차가 있어, 뭐 있어. 걸어가는 길이라 그래가지고 과거보러가면 전라도 저서부터 장항 배타고 걸어 올라간겨. 옛날 구지 옛날 구질이 저 한양 아래 직선길이여, 여가. 전라도 저 군산서부터. 그래서 원이 원이 지나갔다고 해서 원남리여, 그게.

【원남리 설화 2】

음봉면 원남리 원도상씨 자택, 1993. 6. 28., 박미애, 권은주, 최소정 조사

원도상(남,70)

원남리 마을 유래, 원남리 지명 유래, 국수봉의 다른 이름 투구봉

원남 소동 1 앞

갯에 뜰이 있는데 뜰 갯에 옷나무가 짝 있었어 있었어. 그래서 그걸따 가지고 옷칠자 나무목자 칠목이라 그랬어. (조사자 : 옷나무를 칠목이라고요?) 그렇지 옷칠(칠)자 나무목(木)자 (조사자 : 아! 그렇구나) (조사자2 : 결국은 다 같은 말 아니예요) 저기가 원남리야. 원남리가 옛날에는 여기가 원남리가 아니었고 저기 저의 산 밑에가 뜰굴, 말하자면 불리는 이름으로 뜰굴이여 (조사자: 뜰구요?) 뜰굴 (조사자 : 뜰굴, 왜 뜰굴이라고 그랬어요?) (청중:뜰굴) 거기가 동네가 있었어. 뜰굴이라고 거기가 인저 동네가 있었는데 옛날에 동네가 있었어. 산이 이렇기 댕그 거 가운데로 있는데 거기가 옛날에 동네가 있었다야. 우리는 모르는 애기지, 인저. 역사로 참 저 애기로 들은 애기지 그런디 고 앞의 산의 요쪽산은 말하자면 소가 들어누워서 있는 형국이고 지금 원남동네가 끝머리가 소 꼬리가 꼬리가 원남동네라는거야. 지금 여기 있는게 (조사자 : 예) 그러고 그 앞에는 조그만 봉우리가 하나 있는데 그건 그 소 밥그릇 구소 구소가 인저 댕겼다고 소가 인저 구소를 놓고 밥을 먹었는데 (조사자 : 구소요?) 구소 옛날에 구소라고 했지 소 밥주는 구소 밥주는거 인저 (청중 : 나무로 판거야) 밥통이지 뭐 말하자면 (조사자 : 여물통 같은거죠!)그렇지. 인저 그 산등어리가 거기 있는데, 인저 소등어리로T 생긴 요 산이 그 가운데다 누가 모이를 쫓어. 묘, 묘, 묘, 묘를 쫓는데 소 등허리에다 묘를 쓰니께, 이놈이 소가 일어날 수가 있나. 첫째 밥을 먹어야 할텐데 밥을 먹을 수 없지 등허리다가 모를 놀러 썩났으니까 이게 무거워서 일어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그 뜰굴이라는 동네가 망해가지고 망해가지고 지금 저 건너 동네가 그리 인저 이사를 온 거야 (조사자 : 아! 이사를 왔다고요) 그러 저기서 전부 거 그 동네가 삭 망해가지고 그 동네로 이사를 온 기야, 인저. 그 동네로 인저, 이사를 와 가지고그때 당시는 몇 호 안됐지 몇 호안돼가지고 인저 우리가, 우리 증조부께서 거기서 사시다가 그 동네 망하는 바람에 인저 그리로 내려왔어. 그래서 원남리 저 건너 동네는 우리 원가가 거기서 원거지지. 증조부 때부터 살아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내려와서도 이제 어떻게 옛날에 무슨 뭐 도깨비불? (조사자:예) 도깨비 불이 많이 있어가지고 도깨비 불이 나가지고 동네가 또 폭삭 불이나서 망했어. 그런디 그렇게들 두축을 치뤘어, 두 축을 치뤘가지고 그 동네가 싹 절단이 났었거든 그래서 지금도 저 건너 저기 창고진데가 있었어 원남리에 동네가 있어. 동네 창고, 창고 (조사자 : 창고?) 뭐갓다 다 쌓고 하는데 그거 진지가 얼마 안돼. 거기가 우리 살던 집자리인데 지금도 거길 파보면 옛날에 불이 나가지고 쌀, 곡식 이런것 타서 썩은 것이 나와. 그래서 인제 (조사자 : 지금도 나온다고요?) (조사자 : 전설이 아니고 아 진짜구나) 그 뒤로 안나오고 아래 우리 살던 집 그 쪽으로만 나와. 그래서 인제 그게 원남리, 원남리가 그리 내려왔는데 내려올때 동네 이름이 없어서. 그냥 무조건 내려온거지.

그런데 이 동네 이름이 어떻게 또 원남리가 되었느냐. 그것은 옛날 어느 어느 시대인지는 모르는데, 들은 애긴데 어느 고원이 저기 서워서 이리 이렇게 가시다가 가시다가 이 옛날길은 이 길이 쪼그만 길이였디야. 그래서 온양 구온양으로 되었는데 이 신온양이 그저기는 없었고 구온양이 있었거든 그 어른 가는데 가다가 원이 원자리가 어디냐면 요아래 신정리라고

요루원, 모루원 있는 데여, 거기가 요루원이라서 거기서 떡 앉아 이 원이 쉬어 이렇기 쳐다 보니 게, 갑자기 동네가 쪽 있는데 “저놈의 동네가 저 이름이 뭐냐?”고 물으니 “아직 모른다.”하니 “그럼 내가 이름좀 저준다.” 그래가지고 원이 앉아서 쳐다본 다가 남쪽이다 해서 원남리다 이렇게 그래서 원남리다 이렇게 전설이(녹음불량) 그래서 원남리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요루원은 자기가 지나다가 앉아 쉬었던 데가 요루원 그래서 요루원이다 그렇기 그런 얘기는 들었고 그리고 원남 앞으로다 옛날에는 장이 섰었다는데 우린 장이 섰다는 얘기만 들었지 뭐야 확실히 저기도 모르고, 들은 것이 확실한 것이 거긴 बात을 파보면 지금도 계왕장이 나와 (조사자 : 네.) 그래서 확실한건 모르지만 인저 들은 얘기, 그런 얘기 밖에는 아는게 없어. 그래도 아직은 내가 여기서 그래도 여기서 할아버지 뭐 아버지적부터 내가 칠십여년 살고 그랬으니깐 아는 거는 내가 좀 쪼끔 날거여.

그리고 국서방, 국서방하는건 요기 뒷산이 요기 국수봉이라고도 하고 국사방이라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 (조사자:예)그건 이 순신 장군의 묘소가 그 너머 있잖나배. (조사자 : 이 순신 장군 묘소가요?) 응. 바로 요 그 너머 있어. 이 순신 장군 묘소가 그래서 인저 저쪽에서는 이 산을 보고서 투구봉이라고도 그러지. (조사자 : 투구봉이요?) 이 순신 장군이 투구 쓴 형이라고 해서 투구봉이라고 그러지. 여기서는 인저 국수봉이라고도 그리고 국서방이라고도 그러지 옛날엔 요 길이 구불구불한 산길 쪼그만 산길 백이 없었어.

사. 음봉면 마을 7 (월랑리)

1) 조사일정

1993. 6. 29., 방지선 기록

조사 둘째날인 6월 29일 오전 11시에 숙소에서 나와 11시 30분경 월랑 2리에 도착하였다. 큰 호수를 끼고 있는 이 마을의 이장택을 찾아가니 원운전 할머니 택으로 찾아가면 많은 이야기거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찾아가 보니 여러 할머니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조사자들을 반갑게 맞아준 할머니들이 번갈아 시집살이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 받더니 본격적으로 장동희씨가 <시집살이 이야기> 그리고 <도깨비 이야기> 에 대해 구연해 주었고 원운전 씨가 <손자 삶은 효부 이야기> 김진환 씨가 <소금 장수의 지혜> 에 대해 이야기해주었다.

12시에 이야기를 마친 후 월랑 1구를 출발하여 1시 30분에 월랑 2구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다. 마침 이곳에 여러 어른들이 모여 막걸리를 마시며 쉬고 있는 틈을 타서 이야기를 들었다. 전길두씨가 <부뚜막에 오줌 싸던 소년이 인삼으로 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하지만 몇몇 어른들은 시골 생활을 알지도 못하면서 조사를 하면 시골이 더 발전할 수 없다며 조사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더 이상 조사를 할 수 없었다.

그래서 2시에 이곳을 떠나 30분 후 산동에 도착하였다. 비가 내리는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물어 물어 이장택에 들러 <둔포라는 지명의 유래>, <이 마을 은행나무의 유래> 등을 들었고 김강?택에 많은 어르신이 계신다고 하여 그곳으로 가서 김업률씨가 <천안에 비가 안 오는 이유>,<충청도 아??>를 불러 주었다.

모든 어른들이 화투를 치느라 구박하여 4시 30분 숙소로 돌아왔다.

2) 마을 개관

【음봉면 마을 7】

337-860 충청남도 아산군 음봉면 월랑리

1993. 6. 29., 박은실 조사

마을입구에 공장이 몇 군데 위치하고 있어서 전형적인 시골 모습이라기보다는 산업화의 영향을 받은 현대 시골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한쪽 편에는 저수지가 위치하여 낚시터로 애호되는 듯했으며, 공장이 위치한 마을 모습과는 달리 조용하고 한적해 보였다. 주민들은 마을 내의 공장에 다니는 것으로 농사 외의 수입을 올리는 듯했으나, 젊은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서인지 생기가 없어 보였다. 교육시설로 월랑국민학교가 있고, 일정 때 장수가 많아서 월랑 2구는 장수마을이라 불렀다고 한다.

3) 구연자

【월랑리 구연자 1】

음봉면 음봉 2리, 장동희, 여, 62

1993. 6. 29., 김연아 조사

이곳으로 시집온 지 삼십 년이 되었고, 마른 편이며 잘 웃는 편이다. 시집살이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따위 것을 무엇 때문에 하느냐고 하면서 그냥 여자들의 쓸모없는 얘기라는 식으로 부담을 느끼는 듯한 모습이었다. 본인의 집 주소는 모르면서 이 충무공의 후예라는 점에 자부심을 보이기도 하였다.

【월랑리 구연자 2】

음봉면 월랑 2리, 김진환, 여, 66

1993. 6. 29., 김연아 조사

예전에는 보따리 장사를 했었으나 지금은 쉬고 있으며 목천에서 이사온 지 40년이 되었다. 보따리 장사를 했다면 아주 활동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외로 아주 얌전히 말하고 말하는 태도도 팔을 꼰채로 지긋이 이야기한다. 사진을 찍는 일을 꺼려했고, 이름을 밝히는 것도 달가워하지 않았다.

【월랑리 구연자 3】

음봉면 월랑 2리, 원운전, 여, 73

1993. 6. 29., 김연아 조사

오른쪽 원운전, 왼쪽 김진환

고향은 황해도 본산으로 6.25 때 피난을 내려왔다. 서글서글한 웃음이 인상적이고 조사자들에게 많은 호의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 분 댁에는 평소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눈다고 한다.

【월랑리 구연자 4】

음봉면 월랑 1리, 전길두(田拮斗), 남, 62

1993. 6. 29., 김연아 조사

현지 거주경력 15년으로 보통 체격에 말을 할 때는 막힘없이 시원시원하게 한다. 발음도 비교적 정확하다. 전체적으로 유쾌한 분위기를 가졌으며 힘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월랑리 구연자 5】

음봉면 월랑 1리, 공기성, 남, 64

1993. 6. 29., 김연아 조사

이곳에 4대째 살고 있으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왜소한 체구에 검은 얼굴을 하고 있다. 말하는 도중도중 가래를 많이 뱉으며 서서 구연하였지만 목소리가 작은데다가 술에 취한 상태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청중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월랑리 구연자 6】

음봉면 2리, 심명구(心明求), 남, 68

1993. 6. 29., 김연아 조사

6대째 이곳에서 살아오고 있는 분으로 키가 크고 많이 타서 검은 피부를 가지고 있었다. 구연시 발을 쏜 채로 손짓을 크게 하며 힘있게 웃는다. 특별히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기 보다는 옆에서 거드는 정도여서 청중들이 듣기에 오히려 어려움을 느끼게 했다.

4) 설화 자료

【월랑리 설화 1】

음봉면 월랑리 2리 장수마을, 1993.6.29. 김연아, 박은실, 방지선 조사

장동희, (여, 62)

도깨비 이야기, 시집살이 이야기,

그이가 그냥 그 저기러 그 보파리 이 동네로는 안 땡겼어. 그 동네로는 안땡기고 저기 저

대동리라는 동네가 있어.저 너머 대동리여. 그리 저 장사를 땡겼어. 저쪽,저 너머. 보파리를 들고 노인네가 그렸는디 저 보물뜨기라는 데가 있어. 저기 큰 산 보물 끄기여. 보물 뜨기라고 그 산으로 이키 가는디 어디 사람이 저 대동 사람이 함정을 파놔대. 거 호랑이털 빠지라고. 거가서 이 노인네가 빠졌어. 거가서 노인네가 빠져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 그 놈의 깊은 놈의 산골에 가서 빠졌으니 글씨 얼마나 고생을 해. 이 노인네가. 저 짐 다 갖다 벽이다 농구 이렇게 거 뒀어 소, 소. 이렇게 들어리다 이렇게 놓고 양쪽이. 쌀 같은 거 이리 키 실어 쫓거든. 쌀이 양쪽이 이렇게 실었어. 어디야 그저 이만가 뭐 나오면 하는 거 있어. 이렇게 쫓 다갖다 벽이다 농구 저 저 도깨비가 어 뚜막도 발랑 뒤집어 놓고 (조사자: 그냥 장난치느라구요?) 어 그냥 장난치기 좋다구. 그라구 그냥 도깨비가 식칼로 갖다 솔단지다 뒹놓고 술이다도 뒹놓고 그냥 그렸다. 그 전이 저기 저 아래 저너머 거리 아래 외할아버지 그이가 쌍둥이였잖아. 그 할아버지가 월랑장수 그렇게 땡겼어.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장사를 왔다가면은 앞을 떡 가로 막더래. 밤이. 냅다가 싸대기를 쓰리켜 농구서 아침에 와보면 그게 빗자락이더라. 빗자루를 그럭하고. 어려서 그런 소릴 들었어.

그라구 내가 어렸을 적에 본 거는 월랑 국민학교가 있잖아. 잉. 월랑국민학교가 있는데 그 저 우리네 그 옛날에는 학교도 못 다녔잖아. 가난하니까 학교를 안보내 줬지. 그래서 인저 저녁에 인저 선생님이 인저 조금 먼 야학을 가르쳤어. 야학을 가르치면 가가거겨 인저 이런 거 배웠지. 그래서 인저 학교를 인저 저녁에 이렇게 가면은 아고, 불이 너문개 너문개 고개. 여기 너문개 고개라고 그래. 아너. 너문개 고개하고 도깨비 불이 죽, 너문개 고개에서 넘어 와유. 넘어오면은 쪽 그것 이렇게 걸어오는 뱀이 읊어. 그거는 쪽가. 그냥 쪽 각지고서 스스로 읊어져. 그저 까치골에서 오고 거기서 오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런거는 봤어. 응. 처녀들이 야학하러 가고 그러므는. 어려서, 어려서지 뭐. 여나쁜 살이지 뭐. 왜정 때니께.

저기 인저 머느리가 하는 소리지. 우리 시어민 염치도 좋지. 놔 놓고 날테리러 왔나.

【월랑리 설화 2】

음봉면 월랑2리 장수마을, 1993, 6, 29., 박은실, 방지선, 김연아 조사

김진환 (여, 66)

소금장수의 지혜

보파리 장사, 아구 그 따위 걸 한단 말여. 애 데리고 뭐 저 산이 갖다 그걸 하라구. 그 아무 것고 아닌 걸 뒀혀. (조사자: 산에 데리고 갔다 뭐해요?) 어뜩 혀. 갔다왔지. 옛날에 살기가 곤란하니께 장사해먹느라고 애 업고 홍역하는 걸 데리고 올라 갔다가 저 마악 올면서 그냥 홍역하며 막 앓으니께 애가 얼굴을 쥐 뜯어가며 울어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물을 떠다 맥이니께 개가 인저 그제서는 안 울드라고 그랬대. 그래 산에 올라가니 꽃이 아주 활짝 폈드라고 그런 걸 내가 데리고 다녔다고 그런 걸 애기를 하라 그런걸. 그걸.

요 앞에서 자는데 저 어디 누가 쥐.그 노인네가 제사라 그날 저녁이 제사랴. 그 나 오늘 나 저기 생일 뭐 읊어 먹으러 갔텐디 가자고 그려. 난 여기 달이 나서 못간다고. 소금장사가 바로 앞이서 자니께.못간다고 읊어먹고서는 진 건 먹고 마른 건 싸가지고 오라더래. 그랬는

데 그 그 이튿날 그 이튿날 조금으 ㄹ팔러 ㄴ는디 어디를 가니까서는 저기 뛰여, 애가 뒀다고 애가 뒀다고 난리가 났더래. 그냥 어 애가 뒀다고. 손자를 갖다가 항아리에 걸어 쳐 놓었다고. 왜냐하면 그 저 저기가 그러더라. 헌신이 오더니 조금장사가 와서 이렇게 자니께 헌신이 오더니 인저 가서 제사 얻어 잡숫고 와가지고서는 에이 부예가 나서 부예가 나서 손자를 항아리에다 떠 박지르고 왔다고. 국을 먹을 라니까 구렁이가 빠지고 밥을 먹을라니까 바위가 들어서 먹을 수가 있냐고. 응 머리카락을 구렁이라 그래. 부예가 나서 손자를 항아리에다 떠박지르거 왔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인저 거기를 차근차근해서 조금장사를 해서 팔러 가니께 파리가 애를 뒀다고 난리가 났다고. 애 뒀다고. 그래서 정성껏 제사를 깨끗이 잘 지내드라라고 그랬지. 그렇게 바위는 돌. 국에는 머리카락 빠지고 밥에 돌들은 거야. 어 깨끗이 못하고 밥에는 뭐 들은 거 깨끗이 안해서 밥을 먹을라다가 바위가 들고 국을 먹을라다가 먹지도 못하고 화딱지가 나서 숲을 떠박지르고 왔다고 그러드라고. 그래 잘 깨끗이 지사를 지내라고.

【월랑리 설화 3】

음봉면 월랑 2리 장수마을, 1993. 6.29., 박은실, 방지선, 김연아 조사

원운전(여, 73)

손자 삶은 효부 이야기

효자래. 효잔데 병이 시어머니가 병이 들었는데 손자를 삶아먹어야 한다고 그러더라. 어디가 물어본게.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겠어. 그래도 며느리가 효자니께 할 수 없다고 그렇게라도 하고 부모 병으 ㄹ고친다고 해서 했는데 이 손자를, 그걸 삶았는데. 자기 애기를 갖다가 저 가마솥이다 농구선 삶았대. 그랬는디 그게 인삼이고 애들은 아들 형제가 뛰어 들어 오더라. 인삼은 시어머니 고치고 아들형제는 인제 들어오고. 그것이 그러나 보느라고 인제 그런거야. 아들형제르 ㄹ삶아 아들 형제를 삶아먹어야 산다고 혀. 삶으라고 그래서 인제 그 꼴 보느라고 그라는 건데. 이제 꼴 보느라고 인제 애들은 그냥 살고. 며느리가 효자라 그려. 효자라.g

【월랑리 설화 4】

음봉면 월랑2리 버스 정류장, 1993. 6. 29., 박은실, 방지선, 김연아 조사

전길두 (남, 62)

부뚜막에 오줌싸던 소년이 인삼으로 변한 이야기

옛날 세 식구가 살았는데 말야. 옛날에 세 식구가 살았는데 엄청 가난해가지고 참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고 장가는 가야겠는데, 아들 하나 났는데 어찌 참 도대체 참 장가를 아 이거 아 그래서 얌전히 있다가 어떻게 하다보니까 장가를 들 수가 없단 말여. 어디서 장가를, 시원찮은 사람하나 얻었던 말여. 얻었는데 어 노인네 둘하고 자기하고 넷이냐 인제. 장가 들었으니까. 그냥 저 그냥 사는디, 아니 가만히 보니까 성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화롯불에다가 전부다 거시기 한다 말여. 찌 이 황적어 황적어 말여. 근데 며느리 얻어서부터는 며느리 얻어서 부엌은 불이 계속해 꺼지는 거여. 며느리 그 뭐 화롯불이. 아 이거 큰 일 났

거든. 여자는 이거 화롯불 못한다고 새로 얻을 수도 없고. 그래서 며느리 땀에 못 살겠다. 근데 저 아들보고 그러니까 아들이 인제 계속해서 지키는 거지 인제. 게다가 인제 며느리가 지키고 그래 뭐 어떡해. 계속해서 꺼지는데 계속 묻어봐도 계속해 꺼지고 꺼지고 한단 말여. 아 그래 밤 중 하루 이틀 났는데 하루는 가만히 보니까 밤중 한 한시쯤 났는데 어, 바람이 쓸불고 어 싸릿문이 스르르 열리드라. 바람불면서. 거 이상해서 뭐가 들어온 것더 같고 안 들어 온것도 같고 그러드니 문이 사르륵 열리면서 쉼 소리가 나거든. 그러니 화롯불이 젖으면서 그냥 꺼지드라. 사람은 안 보이고. 이제 어떡하. 못잡고 못 잡고 했는데 하루는 하루는 에 글썽 내 애기좀 들어 봐요. 하루는 어 그 여자가 내가 그럼 지킨다고 어 그러니까. 바람이 쉼하고 부니까 꼬꼬마한 아이가, 애가 하나 들어오거든. 들어와서 방문을 살그머니 열드라. 근데 오줌을 갓다가 거기다 한 방을 누드라. 그래 붙잡으려구 쫓아 나온거지. 그 저 며느리가. 그 한 없이 쫓아간 거여. 가보니까 산을 막 기어 올라 가는데 아 그래가지고서 가보니까 갔거든. 큰 동삼이가 나와. 어 좋은 배가 많고 동삼이 하나가 거기 서있드라. 그래가지고서 체를 지내고서 동삼을 캐다가 잘 살았다 이거여. 복을 준거지 인제. 하도 가난하니까.

【월랑리 설화 5】

음봉면 월랑 2리 장수마을, 1993. 6. 29., 박은실, 방지선, 김연아 조사

공기성(남, 64)

용와산과 용굴에 얹힌 이야기, 안장바위 이야기

일본놈들이 가만히 그 와서 보니까 안 되겠거든. 저 이 용와산이라고 이 앞산이 왕와산이여. 그래서 저게 장 장수구. 저 장수 거기서 나을 법한게 이 목을 목을 찢른 거. 이 목비리고개여. 일본놈들이 그렇게 다 목비리 고개라고. (청중:목베게 목베게 고개) 그것이 일본사람들이 한국이 인재들이 너무 많이 나졌거든. 거 지리보는 사람들이 봐가지고 저게 그래서 장수여. 동네 이름이.월랑 2구가 장수여 장수.장수나온다고해서. 장순디. 일본사람들이 목을 딱 찢른 거. 이 현로다가 거기서 나오게 났응께. 혀를 딱 찢른 거. 그래 이 목을 잘랐응께 목베개 고개 이 거기 장수굴은 장수나온다고 장수고개. 용와산 줄기의 허리를 잘른 거. 그 게. 장수마을을. 그래서 목베개 고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우리나라 웬만한 데 다 그렇게 했단 말여.

(조사자:용와산에 용굴은 또 뭐예요?) 용굴이 또 거기 있지.또. (조사자:그 굴은 어떻게 된거예요?) 용굴이여. 그건 용이 나왔자고 해서 용굴이라고 했는데 죽어요 죽어.

여기 저기 위에 거기 과거 보러 가다가 거기 그래 요 와서 글 읽고 거 가서 거 앉았단 말여. 아 그래. 앉아보니까 바위란 말여. 그래 넘어와 가지고 간거여. (조사자:과거보러 갈 때 앉았다고 해서 안장 바위가 된 거예요?) 그러. 그렇게 된 거지. 바위가 이렇게 흔들린다고. (조사자: 안장바위가 흔들려요?)어. 그류.

【월랑리 설화 6】

음봉면 월랑2리 장수마을, 1993. 6. 29., 박은실, 방지선, 김연아 조사

심명구(남, 68)

도깨비 이야기, 피꼬리성 이야기

그런 얘기가 있어. 저 상규네 짐이 도깨비가 있었어. 그 짐이 인저 어떻게 하든 술 뚜껑을 술안이다가 집어는다메. 어떻하든이. 울엄니가 그러. 애 나보고 그러.“애, 저 좀 가봐라.” “왜요?” “술뚜껑을 술단지다 집어 놓다.” 술 뚜껑이 크잖어. 술단지 보다. 근디 어떡하든 그 높이 술안이다 집어 놓는다. 도깨비가 이. 울 엄니가 나보고 그러길. 아 어떡하든 들어가요. 아 글씨 나도 모르겠다. 가보니까 들어가 있더라고. (조사자:어떻게 꺼내요?) 아 또 꺼내봐. 도깨비가. 빼놓지. 장난치는 거. 그게 장난치는 거. 도깨비가 근데 시방 그게 몇년 부터 있었어.

대충 아는 건데 아버지가 인제 남매. 아들하고 딸하고 성을 쌓게 했어. 그래 하나는 문황성을 쌓고 한는 피꼬리 성을 쌓는디 (조사자:문황성이요?) 이 문왕성인가 문황성인가 쌓기를 했는디 아버지가 아들을 봐준거여. 그러니까 저기 높게 쌓건 죽기로 죽이기로 했거든. 죽기로.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 편을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아들이 먼저 쌓았다고. 딸래미는 행주치마다 쌓는디 가보든 그것말 같애.(조사자:딸은 죽었어요 그럼?) 죽었지. 아 성쌓는 게 보통이여 그게? 어떻게 행주치마로 갔다 쌓아 말도 안되지. 그래 천강리골 거기 성이 두개 있어. 문왕성하고 피,꼬리성 하고.피꼬리 성이 잘렸지.

1) 하가끼 : はがき-엽서

2) 배관 : 대관